청년 희년 미사.

교황 레온 14세님의 강론.

2025년 8월 3일, 연중 제18주일.

토르 베르가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조금은 쉬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전례, 곧 성체성사를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기억에 남을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함께 걷고, 함께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어제 저녁 함께 지낸 철야기도 이후, 오늘 우리는 다시 모여 성체성사, 곧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신비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여정을 따라 걷는 것과 같습니다(루카 24,13-35 참조). 그들은 처음엔 두려움과 실망에 가득 차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아무 희망도 없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들으며, 빵을 떼는 순간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부활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의 전례는 이 장면을 직접 다루진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감정과 소망, 생각을 밝게 비춘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 줍니다.

제1독서인 코헬렛서는 우리가 한계와 유한성을 체험하도록 초대합니다(코헬 1,2; 2,21-23 참조). 화답송 역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은 인간”(시편 90,5-6 참조)을 노래합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 깨닫게 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풀은 연약하고 쉽게 꺾이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납니다. 마치 봄을 위해 겨울 동안 땅속에서 에너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더 깊은 갈망을 느낍니다. 이 갈망을 외면하거나 값싼 대체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갈망을 통해 하느님을 향해 발돋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십니다(묵시 3,20 참조).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무한한 하늘의 공간으로 나아갑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을 찾던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 안에 계셨고, 저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 당신께서 부르시고 소리치시어 저의 귀먹음을 깨뜨리셨고, 당신께서 빛을 비추시어 저의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당신의 향기를 맡고 저는 당신을 향해 숨 쉬게 되었으며, 당신을 맛본 후에 배고프고 목말라졌고, 당신의 평화에 닿아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고백록 10권 27장)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도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갈증이 있고,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를 묻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 서로 다른 문화와 나라의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며 많은 아름다운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예술, 음악, 디지털, 스포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했고, 참회의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체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삶의 충만함은 소유나 소비가 아닌, 기쁘게 나눌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루카 12,13-21 참조). 우리가 지닌 것은 형제자매와의 일치와 하느님과의 사랑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한 대로,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십시오”(콜로 3,2).

그리고 “깊은 자비와, 온유함과 겸손과 인내, 용서와 평화의 마음”(콜로 3,12-13; 요한 14,27 참조)을 키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필립 2,5 참조).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로마 5,5 참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위대한 삶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십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인간적이고 형제애 넘치는 사회를 향해 여러분 자신을 바꾸도록 이끄십니다.” (2000년 제15차 세계청년대회 기도의 밤)

예수님과의 우정을 지키십시오.

기도와 성체조배, 성체 영성체, 고해성사, 사랑의 실천을 통해 매일매일 그분과의 일치를 다져나가십시오.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와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곧 성인으로 시성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성덕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적은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 속에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희망의 성모 마리아께 맡깁니다.

이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 속에 걸음을 이어가며,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과 증언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